

“업장 벗고 부처로 태어나는 날”

■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오늘은 못 생명이 부처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오늘은 미혹도 깨달음도 다 버리고 부처와 범부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분이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법신(法身)은 우주 속에 변재(徧在)하여 고금이 없고 생멸에 걸림이 없어 오고가는 자취가 없습니다.

비록 그 모습은 텅비고 고요하여 볼 수가 없지만 찾고 부르는 곳에 현응(玄應)이 일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늘은 만물 속에 인연 따라 그 모습을 나누어 빛과 소리로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버리고 비우면 그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탐하고 얽매이면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눈 앞에 여려의 묘용(妙用)이 나타나고 있으니 보고 듣는 빛과 소리가 부처님의 지혜광명이며,

지나가는 바람이 본지풍광(本地風光)을 밝히고 있으니 삼라만상과 일초일목이 여러분의 본래면목입니다.

무명 속에서 걸림 없는 지혜를 얻은 이는 곳곳에서 살아있는 부처를 만날 것입니다.

타 오르는 분노 속에서 대비심을 잃은 이는 이르는 곳마다 삼악도(三惡道)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은 업장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날이요 못 생명이 부처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이가 미래의 부처님”

■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봉축사

존경하는 2000만 불자 여러분!

세존의 탄신은 사월의 팔일만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모든 시간이 봉축의 초파일입니다. 탐욕의 불꽃이 보시의 강물로 흐르는 어느 날, 분노의 불길이 자애의 구름으로 변화하는 그 순간, 사건의 칼날이 지혜의 꽃잎으로 변하여 허공을 채우는 그 모든 계절에 부처님들은 출생하십니다.

존경하는 이전만 불자 그리고 승가대중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연대의 전통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천철백년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번뇌의 중생계가 다하는 날은 기약할 수 없으며, 고통의 바다 아닌 곳 또한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혜로운 마음과 자비로운 행동으로 고통 받는 중생들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미래의 부처님이십니다.



“지혜와 자비의 등불 켜서 세상 밝게 만들자”

■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봉축사

“삼계가 모두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는 위대한 선언은 부처님께서 구세대의 원력으로 일체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하여 우리의 삶을 한탄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살필수록 부처님의 모습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적 난관에 직면하여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

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중생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켜서 어둠을 깨치고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밝혀지는 연등 하나 하나가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돼 이 시대의 어려운 경제 그리고 사회의 어두운 곳을 환히 밝혀 소외받고 고통 받는 이들이 행복해지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체 부처임을 알고 부처로 보는 것이 지견”

■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봉축사

아기 부처님께서 오시어 외치신 사자후, 그 한 말씀은 다름 아닌 중생을 위해 지견(知見)을 여시고, 중생을 위해 지견을 보이셨으며, 중생을 위해 지견을 깨닫게 하시고, 중생을 위해 지견에 들게 하신 일불승의 일대사인연이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지견이라 함은 너와 내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일체가 부처임을 알고 부처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부처는 그대로의 모습인 제법실상(諸法實相)을 말합니다.

어떤 차별도 없이, 어떤 분별도 없이 있는 그대로 살펴볼 때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요, 남 또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면 곧 중생이요 그 마음을 청정히 하면 곧 부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우리 모두 존귀하니,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가 마땅히 평안케 합시다.



“계행과 정진으로 인류 어려움 극복할 것”

■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 봉축사

석가모니부처님은 삼라만상이 모두 진리요, 자비이며 지혜이자 무한한 성품 그 자체임을 ‘현상전하 유이독존’의 가르침으로 이 땅에 전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인이자 희망임을 깨침으로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검소함을 사귀어 인욕의 지혜를 키우고, 나눔을 사귀어 보시, 희사(喜捨)의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이타행의 주인이며, 웃음으로 자비

로운 공동체 정신을 전하는 희망의 주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검소함으로 세상과 함께 나누고 자비를 실천하는 계행(戒行)과 정진으로 인류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입니다. 나아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연기의 참된 가르침을 분단의 현실 속에서 구현해 민족상생의 지혜로 다시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나눔과 자비의 이타행 실천하자”

■ 해초 스님

태고종 종정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참된 진리의 세계를 열어 만 중생의 미혹과 무명을 걷어내고 본래성품을 일깨워주시고자 법계의 진리에서 화신으로 이 땅에 몸을 나투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일체중생의 무명업장(無明業障)의 무진고뇌(無盡苦惱)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체대비의 크나 큰 자비심으로 사바세계와 일대사 인연을 지으시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한 속속세(俗世)의 미혹 속에서 자신의 본래면목을 잃어버린 중생들이 본래 자리를 못하고 밖으로만 마음자리를 찾는 어리석음을 일깨워 일체중생이 다 본래 부처인 것을 알리기 위해 오셨고, 천철백 조사(祖師)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본래성품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 이 자리, 우리 곁에 있는 내 이웃과 가족, 사랑하는 이와 미워하는 이, 그리고 모든 생명이 살아있는 부처님인 것입니다.

한량없는 자비의 대광명이 충만한 오늘,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소외받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나눔과 자비의 이타행을 실천하여 모두가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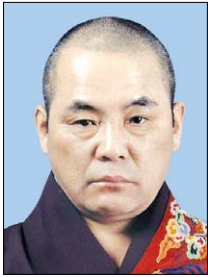
이 귀한 날 지혜광명의 마음 등불이 환하게 비추고 모두가 부처님 되시는 희유한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三角山麓 萬古山屏(삼각산록 만고봉) / 漢江流水 長廣舌(한강유수 장광설) / 萬人雲集 野壇席(만인운집 야단석) / 佛光普照 四部衆(불광보조 사부중) / 以此功德 滅千災(이차공덕 멸천재) / 一切靈魂 生極樂(일체영혼 생극락) 삼각산 푸른 나무 만년의 병풍이요 / 한강수 푸른 물은 맑은 법문이라 일체대중 모인 크고 넓은 이 법석에 / 부처님 자비광명 사부대중 비추이네 이 공력으로 모든 재앙 사라지고 / 일체 영혼 극락세계에 나는 도다.

“자비심으로 베풀어 공덕의 숲 가꿔야”

■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아름다운 생명의 계절, 거룩한 부처님 오심을 큰 기쁨으로 함께 나누십시오.

“하늘 위나 하늘 아래 가장 존엄한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말씀을 자각하고 본래 빛나는 무량광 무량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밝은 지혜의 등불로 어둠을 밝히며, 자비의 덕을 펼쳐 복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중생공양(衆生供養)이 제불공양(諸佛供養)’이라 했듯이, 어려울수록 더 큰 자비심으로 베풀고 공양하여 공덕의 숲을 가꿔야 합니다.

용기 있게 선택한 깨끗한 가난은 무엇보다 값지고 고귀한 것이며, 버리고 비우는 일은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는 진정 자신을 성장시켜 더욱 새롭고 훌륭한 것을 맞이할 수 있게 합니다. 단순함과 간소함, 그 생활의 여백에 불심은 찾아옵니다.

마음자리 물결 꺼져 보배창고 열고 보니 숨어있던 모든 진리 날마다 드러나네. 언제나 우뚝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백역화신 그 열매가 헤일 수가 없구나.

頓悟心源開寶藏(돈오심원개보장) / 隱顯靈通現真相(은현영통현진상) / 獨行獨坐常巍巍(독생독좌상외외) / 百億化身無數量(백억화신무수량)

“불국정토 우리 힘으로 일구자”

■ 불교총지중 종령 효강 정사



사회가 이렇게 혼탁하고 경제가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더욱 빛을 발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온갖 법문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언제나 나의 마음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잘 관찰해 탐진치 마군을 행복 받고 동체대비, 무연대자의 정신을 살려나갈 때 진정한 불국정토가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이타의 실천행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웃을 돌아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불자들이 황폐하고 삭막해져 가는 이 사회를 구하고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앞장섭시다. 불국정토를 우리의 힘으로 일구어 나아갑시다.

“마음 속 자비의 연꽃 피우자”

■ (사)대한불교원용종 종정 일공 스님



불자 여러분은 이 땅은 물론 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부처입니다. 부처는 행복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씨줄과 날줄로 함께 엮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는 자비의 마음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송이 연꽃은 한 사람의 자비의 마음 곧, 부처의 마음속에서 태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자비의 연꽃을 피우려 모두가 힘들이는 이 세상이 자비의 꽃비를 맞고 함께 웃으며 즐기고, 함께 춤출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갑시다.

“높은 덕 원만한 부처님 오서”

■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죽산 스님



塵塵劫前早成佛(민목겁전조성불) / 爲度衆生現世間(위도중생현세간) / 巍巍德相輪滿(외외덕상륜만) / 於三界中作導師(어삼계중작도사) / 人天來合百億願(인천래합백억원) / 衆音微妙穿金闕(중음미묘천금구) / 曼陀女散花雨(만다천녀산화우) / 十二樂伎起舞(십이악기起舞)

한량없는 겁전에 일찍이 성불해 중생제도하기 위해 이 세간 오셨네. 높은 덕이 보물달걀이 원만해 / 천상천하를 인도하는 부처님 되셨네. 인간천상 모두 백억의 몸이 되니 / 웃소리 미묘해 황금구리 꿩은듯하고, 만다라의 천상여인들 꽃비 흩뿌리니 / 열두 악자 모두 일어나 두둥실 춤을 추네.

“삼보 팔지 말고 자기 팔아라”

■ (재)일불선교종 종정 봉해 스님



유상보시는 윤회의 자본이요 무상보시는 무기에 떨어진다. 삼보를 팔지 않고 지혜롭게 살라 법희선열하면 순수 무잡하리라.

불법의 노예가 되어 곱도스만 치장하고 성자인척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면 오히려 속마음까지 치졸하게 만들기 때문에 밥을 얻는 사람은 부처님을 팔아도 안되고 대중을 팔아도 안되며 법을 팔아도 안된다. 당당한 자기를 팔아라.

“자신의 본성이 부처임을 믿어라”

■ (사)한국불교미륵종 종정대행 송정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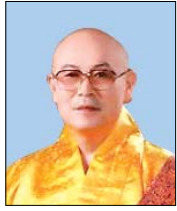


春有百花秋有月(춘유백화추유월) / 夏有涼風冬有雪(하유량풍동유설) / 若無閑事掛心頭(약무안사괘심두) / 便是人間好時節(편시인간호시절)

봄에는 꽃피고 가을에는 달이 희영청 여름은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함박눈 만약 그대의 마음이 한가하게 된다면 이야말로 인간세상 좋은시절 아니라 즉 자신의 본성이 부처인데 왜 믿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일에 매달려 좋은세월 다보내는가?

“참회하며 자비의 등불 밝히자”

■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眞偽分別盡歲月(진위분별진세월) / 虛華淨名離合歡(진위분별진세월) / 不見落花岩間葉(기년부귀퇴롱구 불견낙화암간엽) / 若何下心佛誕日(儻悔慈悲燭心燈) / 燈(악하하심불탄일 참회자비촉심등)

참이다 거짓이다. 분별하며 즐서느라 밤을 지새웠던 우치한 범부

보지 못했다 지난날 찬란했던 모든 일들을 바위틈에 끼어 바람 불면 떨고 있는 낙엽 될 줄을...

이제 헛된 망상 탐심 다 버리고 부처님오신날 참회 하면서 우리 모두 본연의 마음자리에서 자비의 등불을 밝힙시다.

“모두에게 회향하는 참불자 되길...”

■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공 스님



부처님은 자비의 등불이시며, 지혜의 등불이시며, 또한 진리의 등불이십니다.

부처님의 불법이 지혜를 가르치듯 우리도 중생의 무명과 어둠을 밝히는 광명의 등을 밝혀 각자의 어리석은 마음을 깨우쳐 반성하고 정진하여 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헤아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받는 이웃에게 대자비한 마음을 발하여 부처님의 법을 이웃과 나누고, 복을 지어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는 참 사랑 불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혜와 자비 구족해 실천하자”

■ 한국생활불교종 종정 정관 스님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마음을 밝히고 지혜의 등불을 밝혀 내 가정 내 이웃과 사회, 모든 힘든 분들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지혜와 자비심을 구족해 실천하는 불자가 됩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사자후는 중생은 본래 없고 나의 참 생명, 부처님 생명임을 천명하신 참모로 기쁜 찬탄의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이 필요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필요 하듯 미래를 향해 힘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미래의 삶을 밝힐 공덕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불자님은 감로수가 돼 대승보살의 길로 함께 힘차게 살아갑시다.